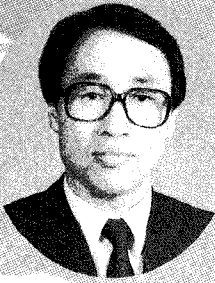


한우개량의 효율적 추진방안



축산기술연구소개량부 관리과장
농학박사 이 수 현

1. 머리말

축산물 수입의 완전개방을 앞둔 우리나라의 양축가가 기본적으로 안고있는 공급증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즉, 내가 지금 업으로 하고 있는 이 축종이 가격면에서나 품질면에서 외국의 그것과 경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은 비록 뒤지고 있지만 미실현의 잠재경쟁력은 있는 것일까, 있다면 그 개발의 실천방안·방법은 무엇인가, 그 실천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과 일신상의 고통은 참고 견딜만한 것일까, 그러는니 차라리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낫지않을까...

축산물 수입의 완전개방은 국지적인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범 지구적인 세계축의 축산업으로 탈바꿈되어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 축산물 품질

의 우리다움, 우리 축산물 가격의 국제수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축가뿐만 아니라 연관업계 구성원 모두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쇠고기산업에 있어서 한우개량은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이다. 쇠고기품질과 생산효율이 원천적으로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우개량 추진에 있어서 낭패를 본 일이 있다. 지속적인 한우개량 증식의 결과 '85년의 2백55만여두로 늘어났던 한우가 쇠고기 공급과잉으로 소값이 떨어지면서 '89년의 1백53만여두로 감소될 때 한우개량의 기본자산인 우량암소들이 속수무책으로 유실됐던 일, '80년대 말

UR협상 추진이 일반국민에 널리 알려지면서 그나마도 남아있던 한우가 아낌받지 못하고 방매되 다시피 했던일 등이 그것이고, 지금도 암소들 사이에 수소를 넣어 자연번식시키는 말기적 행태가 일부이긴 하겠지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쇠고기기의 수입자유화 일정을 정하고 있는 쇠고기관련 UR협상 내용을 간추려 보고, 수입 완전개방후의 쇠고기 가격 및 소값을 추정해 본 다음 그러한 가격 수준에서도 한우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시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한우개량의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우에 대한 경제사회적 시야를 넓히고,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함과 아울러 한우개량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어보고자 한다.

2. 쇠고기관련 UR협상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바 대로 쇠고기관련 UR협상 내용의 요지는 이러하다. 즉, ①2천년까지는 현

행의 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하되 ②'95년부터 '00년까지 연차적으로 수입쿼타량(의무수입물량)을 늘림과 아울러 쿼타량 중 SBS물량(수출입업체간 자율거래물량) 비율을 높이고 ③관세율을 '95년에 일단 43.6%로 인상했다가 연차적으로 조금씩 낮춰 '04년 이후에는 40.0%로 하며 ④수입쇠고기 가격과 국내쇠고기 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93년에는 100%를 부과금으로 부과하여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하였으나 부과비율을 연차적으로 낮춰 '00년까지는 0%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도별 수입쿼타량, SBS물량비율, 관세율 및 부과금 부과비율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다.

올해('96)의 수입쿼타량 14만7천톤은 500kg 짜리 생우 81만두에 상당하는 물량으로서, 그만큼 물량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는 2백10만두 수준의 상시사육두수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94년 말의 한우 사육두수를 보면 2백46만두였고, 쇠고기 생산량은 14만7천톤이었다.

〈표1〉 연도별 수입쿼타량 및 SBS물량비율과 관세·부과금 부과비율

연도별	쿼타량	SBS비율	관세율	부과금부과비율
'93	99천톤	10%	20.0%	100%
'94	106	20	20.0	95
'95	124	30	43.6	70
'96	147	40	43.2	60
'97	167	50	42.8	40
'98	187	60	42.4	20
'99	206	70	42.0	10
'00	225	70	41.6	0

또한 '00년의 수입쿼타량 22만5천톤은 생우 1백24만두에 상당하는 물량으로서 이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3백 20만두 규모의 상시 사육두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94년 말의 사육두수가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00년에는 모두 5백66만두의 상시 사육두수에서 생산되는 만큼의 쇠고기를 우리 국민은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두수에 대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 가능여부와 한우개량추진의 방향을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3. 한우의 경쟁력 수준

쇠고기의 수입 자유화는 쇠고기 관련 UR협상 내용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수입쿼타량이 늘어나면서 국내생산량과 같은 수준의 수입쇠고기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국내 쇠고기시장 보호장벽(관세율+부과금부과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국내 쇠고기시장 보호장벽

이 아주 없어졌을 때, 다시말해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되었을 때 수입쇠고기의 국내시장 유통가격은 어느정도로 낮아질 것인가?

'94년에 수입된 쇠고기의 도매시장 낙찰가격을 내역별로 보면 표2와 같다. 표2에서의 「고급정육」은 목심 등으로서 부위별로 정육이 「지육」은 뼈가 들어있는 상태로 몸체가 수입된 것이며, 「폴세트」는 소 한마리의 부위별 정육이 한 벌로 포장, 수입된 것이다. 또한 「품대」는 수입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도착, 세관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물건값으로서 운임이 포함돼 있으며, 「관세」는 품대와 보험료(품대의 0.6%수준)를 합한 금액의 20% 상당액이다. 수입원가 중 기타부분에는 보험료, 신용장개설비, 무역협회 분담금, 통관비용 등이 포함돼 있고, 「판매비용」은 통관 후 도매시장 상장까지의 소요비용이며, 「부과금」은 수입쇠고기와 국내산쇠고기의 가격차에 부과된 것으로서 부과율은 95%였다.

〈표2〉 '94수입쇠고기 도매가격(kg당)

구 분	수 입 원 가				판 매 비 용	부과금	도매가격	
	품 대	관 세	기 타	소 계				
고급정액	원 3,019	607	34	3,660	270	2,922	6,852	
고급육	지육	2,628	529	28	3,185	308	3,622	7,115
	폴세트	3,100	623	30	3,753	262	2,429	6,444
일반일	지육	2,377	478	26	2,881	147	1,109	4,137
	폴세트	2,893	582	32	3,507	258	2,506	6,271

○ 자료 : 농림수산부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다는 것은 표2의 가격 구성에서 관세가 40%로 되고 부과금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때('04)의 수입쇠고기 도매가격과 그가격 수준에 상응하는 소값을 '94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표3과 같다. 표3에서 「관세」는 품대와 보험료 합계액의 40% 상당액이고, 「소값환산」은 '94년의 400kg짜리 수소산지 평균가격 2백33만4천원에 표3의 수입쇠고기 도매가격에 대한 '94년의 국내산 쇠고기육 kg당 평균가격(7천 4백 23원)

의 비율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추산된 소값이 수입 완전개방 후의 경쟁력 있는 소값 수준으로 본다면 '94년의 400kg짜리 수소값 2백33만4천원은 그가격에 비해 105% 내지 85%가 높은 수준이며, '94년의 가격보다 1백19만7천원 내지 1백6만9천원(평균적으로는 1백13만3천원)을 싸게 생산해야만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생산비 구조로 볼 때 그만큼 크기의 생산비 절감 여력은 있는 것일까?

〈표3〉 수입완전자유화후의 수입쇠고기가격 및 소값(추정)

구분	수입원가				판매 비용	도매 가격	소값 환산
	품대	관세	기타	소계			
	원/kg						천원/400kg
고급지육	2,628	1,058	28	3,714	308	4,022	1,265
일반지육	2,377	956	26	3,359	258	3,617	1,137

〈표4〉 '94 비육우 생산비(400kg기준)

	경영비				자 가 노력비	자본이자	부산물 수입	생산비
	가축비	사료비	기타	소계				
	천원							
중소비육	1,308	397	66	1,771	186	125	15	2,067
육성비육	1,127	501	102	1,730	248	157	21	2,114

○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생산비 조사보고, 1995

'94년의 비육우 생산비는 400kg기준으로 중소비육의 경우 2백6만7천원(밀소 구입시 체중

253kg, 판매시 체중 538kg, 308일 사육), 육성장기비육의 경우 2백11만4천원(밀소 구입시

체중 122kg, 판매시 체중 535kg, 446일 사육)이었으며 내역별로는 표4와 같다. 이와같은 생산비 내역을 놓고 볼 때, 비용절감 방법은 ①번식효율 제고 및 쌍둥이 송아지 생산 확대 등으로 가축비를 절감하고 ②살분임성 등 경제형질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료비 등 생산요소 비용의 효율을 높임과 아울러 ③사육규모도 늘려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으로 집약된다.

먼저 가축비 절감 가능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94년의 큰암소 연간 사육비 99만6천원을 기초로 하여 번식율과 쌍둥이 송아지 생산비율에 따

른 송아지 생산비를 추산해 보면 표5와 같다. 표에 제시한 암소 번식율과 쌍둥이송아지 생산율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암소 번식율은 '94년의 생산비 조사시 83.5%로 기록되고 있으나, 소의 생리에 알맞는 사양관리와 적기 번식관리로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쌍둥이 송아지 생산율에 있어서도 아직은 농가실증시험 단계에 있으나 50%수준의 수태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암소 번식기술과 쌍둥이송아지 생산기술이 고도화 되었을때, 송아지 생산비는 '94년수준의 50%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표5〉 번식효율별 송아지 생산비수준('94생산비수준)

		쌍둥이 송아지 생산율(%)						
		0	10	20	30	40	50	60
큰 암 소 번 식 율 (%)	천원							
	86	1,158	1,053	965	891	827	772	724
	87	1,145	1,041	954	881	818	763	715
	88	1,132	1,029	943	871	809	755	708
	89	1,119	1,017	933	861	799	746	699
	90	1,107	1,006	923	852	791	738	692
	91	1,095	995	913	842	782	730	684
	92	1,083	985	903	833	774	722	677
	93	1,071	974	893	824	765	714	669
	94	1,060	964	883	815	757	706	663
95	1,048	953	873	806	749	699	655	

○ '94번식우 연간사육비 996천원, 번식율 83.5%, 송아지생산비 1,193천원

또한 살분임성 향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가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94년의 육성장기비육우

생산비를 기초로 18개월령 체중이 늘어나는데 따른 생산비 절감액을 추산해 보면 표6과 같다. '01년까지의 산육능력 개량목표인 550kg 도달시 생산비 중 가축비를 제외한 여타비목에서 10% 수준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번식효율과 산육능력 향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생산비 규모는, 육성장기비육시의 생산비 중 가축비가 차지하는 몫이 63%, 기타 비목이 47%임을 감안할 때, 대체로 전체생산비의

30%~40%(62만원~82만원)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생산비를 1백45만원내지 1백25만원으로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격수준(1백13만3천원)에 비해서는 31만7천원 내지 11만7천원 정도가 높은데,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 열세는 경영규모 확대에 따른 생산요소의 효율성 제고와 육질개량에 의한 고급육 생산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표6〉 산육능력별 비육우 생산비 수준('94장기육성 비육기준)

		생 산 비 목 별					계
		가축비	사료비	노력비	자본이자	기 타	
18 개 월 령 체 중 별 (kg)		천원					가축비+
	450	일정액	564	279	176	115	1,134
	475	일정액	564	265	167	109	1,105
	500	일정액	564	251	158	104	1,077
	525	일정액	564	240	151	99	1,054
	550	일정액	564	228	144	94	1,030
	575	일정액	564	218	137	90	1,009
	600	일정액	564	209	132	86	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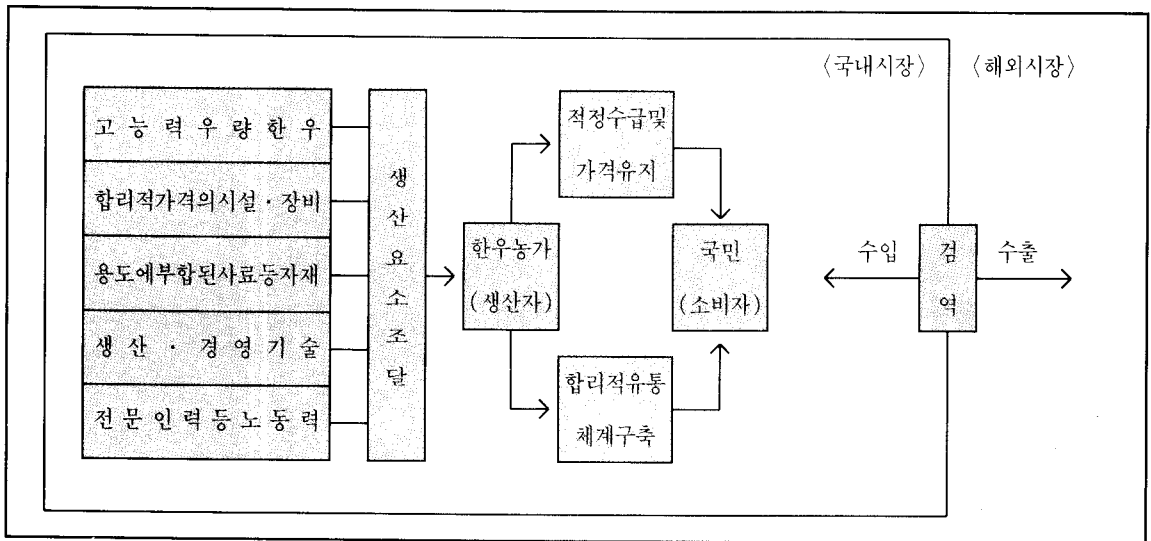
○ '94년의 18개월령체중 452kg, 2001년까지의 개량목표 550kg

이렇게 빠듯하게나마 한우의 잠재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최대한 개발하여 한우고기가 완전 수입개방 후의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켜 나가게 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우사육농가만의 몫이 아니고 쇠고

기산업 관련의 모든 분야 구성원이 공동으로 떠맡아야 하는 것이다. 쇠고기산업을 체계화하여 전개해 봤을 때 관련분야는 그림1과 같다. 그림에서 읽을 수 있듯이 한우사육농가는 ①가축개량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더 좋은 한우로 개량해 나가려는 가축개량기관의 노력 ②축산설비

및 기자재 제조업 발전을 통해 노동절감형·효율향상형 시설·장비를 개발·보급해 나가려는 관련업계의 노력 ③곡류사료 배합·이용의 다양화 및 조사료생산·유통업의 개발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사료를 확보해 나가려는 생산자단체 등의 노력 ④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통해 농가 현장에서의 생산경영 효율을 높여 나가려는 축산 관련 연구기관의 노력 ⑤기술력 향상을 통해 한우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려는 기술보급기관의 노력 등을 한우 생산기반으로 하여 생산비를 최대

한 낮추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유통관련 업체는 도축·가공·포장·수송·이용 등의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한우의 품질 훼손이 없이 본래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합리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책당국은 수급 및 가격안정제도의 적극적인운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우농가에게 사회의 평균적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말아야만 비로소 우리나라의 쇠고기산업은 그 구체조가 탄탄해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림 1〉 쇠고기산업 관련분야

5. 한우개량의 중요성과 개량목표

쇠고기산업의 위와같은 구조와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우개량이다. 쇠고기산업이 갖는 경제사회적 의미가 한우사육농가 등의 소득원 마련과 더불어 국민 일반의 소비편

익 증진에 있다고 할때, 한우개량은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서 한우농가 등의 소득을 높여주고 또한 한우개량은 고기맛을 좋게하여 한우고기의 고정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서 수입 쇠고기와 차별되는 국내 쇠고기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한우개량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농림수산부 축산국)는 '01년까지의 개량목표를 축산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표7와 같이 설정·고시하고 있다. 살붙임성을 대표하는 18개월령 체중에 있어서는 '92년의 477kg(수소기

준, 이하같음)에서 10년 동안 매년 8.1kg 꼴로 향상시켜 '01년에는 550kg에 이르도록 하고, 육질을 대표하는 육질 1등급 출현율에 있어서는 '92년의 15%에서 매년 5%꼴로 늘려 목표연도에는 60%에 이른 것으로 하고 있다.

〈표7〉 한우개량목표(수소기준)

대상형질	'92	'97	'01	연간개량량
6개월령체중 (kg)	179	190	200	2.3
18개월령체중 (kg)	477	515	550	8.1
도체율 (%)	57.6	57.7	57.8	0.02
등지방두께 (cm)	0.75	0.75	0.75	-
등심면적 (cm)	75.8	76.1	76.4	0.07
육질1등급비율 (%)	15	30	60	5.0

○ 농림수산부고시 '93~60('93. 12. 30)

6. 한우개량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적으로 말해 한우를 개량한다는 것은 한우가 보다 잘 자라면서 살이 많이 붙게, 사양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질병에 보다 강하게, 육질이 보다 좋게하는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대로 가꿔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우를 이렇듯 개량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에서 ①한우의 유전적 형질과 능력을 잘 파악하고 ②한우를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③이를 바탕으로 좋은 종모우(씨수소)를 생산한 다음 ④그 종모우로 하여금 농가의 한우를 개량하는데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⑤그 활용 결과는 반드시

확인 평가 후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됐거나 미흡한 점은 반드시 시정 보완해야만 한다.

첫째로 한우의 개체에 의한 유전적 형질과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를 이어 한우를 등록하고, 외형을 심사함과 아울러 생산능력을 검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혈통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한우등록이 매우 부진하여 '94년말 기준의 2백46만두 한우중에서 등록우는 그 5%수준인 10여만두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늘날 다양하고 훌륭한 건축물이 삽시간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용도별로 규격화된 건축자재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설계에 따라 필요한 공법을 동원,

건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개량에 있어서 한우의 등록과 심사 및 검정은 건축물 건조에 있어 건축용 자재의 규격화 비유될 수 있는데, 이는 규격화된 건축자재가 있음으로서 건축물 건조가 용이해 질 수 있듯이 한우개체의 기본적인 됨됨이를 알아야만 이를 적기적소에 활용함으로써 한우개량추진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한우개량 추진의 제1보는 한우의 등록과 심사 및 능력검정의 확대인 것이다. 때문에 한우 사육 농가는 소의 등록과 심사 및 검정을 한우사육의 필수적 사항으로 인식하고 실천에 옮겨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는 제도적인 면과 재정적인 면에서 그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부당국(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착수한 소의 전산화등록사업은 한우개량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한우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능률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하고, 재 활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량관련 기관과 양축가 등에 전산기기가 보급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자료들의 전산화 통신 및 체계적 조작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우를 유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건축용 자재에 대한 용도별 규격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데, 이는 건축용 자재에 대한 용도별 규격별 정보관리가 잘 돼 있음으로서 건축실체가 능률적일 수 있듯이 한우의 유형별

분류가 잘 돼있고 유형간의 교배결과가 예측 가능해야만 한우개량의 기획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우를 유형화하고 유형간의 교배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은 개발해 내기 위하여는 많은 한우에 대하여 그 선대와 후대에 대한 관련자료를 함께 조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급자료의 양이 방대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많은 자료를 체계화하여 조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고자 축산기술 연구소에서는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은 축산기술연구소의 주 전산기에 도종축장·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개량사업소·유우개량사업소·인공수정사업회·종돈능력검정소·종계능력검정소 등 가축개량기관의 전산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 전산통신망을 구성하고,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의 전산망과도 접속시킴과 아울러 양축가의 전산기와도 연결시킴으로서 1차적으로 가축개량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활용하는 한편, 양축가, 축산관련 연구기관, 기술보급기관, 축산정책 및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간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신속하게 유통되게 함으로서 축산업의 전산정보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구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셋째는 보증종모우 생산이다. 훌륭하고 쓸모있는 보증종모우(인공수정용 정액을 생산하는 씨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한우개량 방향에 잘 부합하도록 수송아지를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이 송아지를 육성하면서 당대검정을 통해 후보종모우를 선발한 다음 후보종모우의 후대를 검정하게 된다. 후대검정 결과 그 자손이 우

수한 후보종모우를 보증종모우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단계별 과정에서 「수송아지 계획생산」에는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암소」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축산기술연구소, 도종축장, 한우개량사업소 및 한우개량단지의 등록우들이 활용되고 있을뿐 전국의 한우개량자원이 최대한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즉, 수송아지 계획생산기반이 아직은 충실하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당대검정은 계획생산된 수송아지 중에서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해 내는 과정이므로 능력평가의 객관화 및 합리화를 위해 수송아지를 한 군데에 집합시켜 육성하면서 능력을 조사·분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수송아지를 생산한 주체가 당대검정을 함으로서 검정환경이 서로 달라지는 모순을 안고있다.

또한 후대검정은 후보종모우의 후손이 우리나라의 어디에 있는 암소에서 태어나더라도 모두 우수하고 잘 자라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므로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된 암소를 후보종모우의 정액으로 인공수정시키고, 거기서 태어난 송아지의 육성·비육상태를 조사·분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산된 검정기반이 마련돼 있지않아 후대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종모우 생산에 있어서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우의 유형화와 체계적 관리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당대검정은 축협중앙회의 한우개량사업소로 일원화하고, 후대검정은 축산기술연구소(종축개량부 및 지소), 도종축장, 기반을 갖춘 한우농가 등으로

분산시켜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소요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넷째로 종모우의 합리적 활용이다. 아버소 쪽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태어나는 후손의 절반은 어미소 쪽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어느 형질에 있어서 아버소와 어미소 모두가 우수하다고 할 때 태어날 송아지도 그 형질에 대하여는 우수할 것으로 보이나, 그 우수함의 정도는 아버소나 어미소 어느 한쪽보다 그리 크게 월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어느 형질에 있어서 아버소는 우수하나 어미소가 열등일 때 태어날 송아지는 그 형질에 있어서 어미소 보다는 월등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농가한우에 대해 종모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종모우의 교배대상 즉, 농가한우 암소가 육용우로서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결함을 유형화하고, 그러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교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종모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축주도 그렇고 인공수정사도 그렇고 암소에 발정이 오면 감성적 취향에 맞는 종모우의 정액으로 수정시킬 개연성이 매우 큰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우를 유형화하고 유형간 교배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개발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량정도의 평가 및 다음 계획에의 반영이다. 암소의 됴됨이에 따라 그에 알맞은 종모우를 택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이를 잘 육성·비육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과정이 없다면 무

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채 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다. 육류등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제한적이었으나 육류등급제가 정착·발전되고 「가축개량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으로서 한우의 개량도 평가 및 다음 계획에의 반영이 아주 용이하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한우개량추진의 단계별 기본과제와 지금의 실정을 살펴 본 다음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거니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한우개량의 효율적 추진방법이 되는 것이다. 한우개량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바로 한우개량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체제운영은 관련주체 모두가 짜임새를 긴밀히 하고, 협동하여야만 제 기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우개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각자가 자기 몫을 다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강조되는 것은 한우농가의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인데, 그것은 한우의 등록없이 한우개량체제가 운영될 수 없으며, 한우개량체제 운영을 통해 아무리 우수하게 한우를 개량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우의 기본적인 생리에 알맞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우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뿐만아니라 생산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한우개량추진의 처음과 마지막 장식이 한우농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다.

7. 맺 는 말

2000년의 우리나라 인구를 4천7백만명으로 보고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을 8kg 정도로 잡을 때 쇠고기의 연간 총수요는 37만6천톤이 된다. 이는 500kg짜리 한우 2백7만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5백3십여만두의 한우가 상시사육되어야 한다.

수입개방 및 국제경쟁력 확보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만한 규모의 한우사육 기반을 갖추고 쇠고기를 완전자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또한 한우고기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열위에 있다. 따라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와의 관계는 대립 경쟁적인 관계 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쇠고기 수입개방을 맞아 한우는 고품질쪽으로 가야한다는데 대하여 우리는 이견이 없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회화적으로 비유해 말한다면 안개꽃과 장미꽃으로 만들어진 꽃다발에서 한우고기가 장미꽃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고, 그러한 관계로 한우고기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때 한우개량의 효율적 추진 방법은 안개꽃 꽃다발에 쓰일 장미꽃을 가꾸어내는 수단인 것이며,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벌레먹은 장미는 쓸모가 없으니까...